

## 예수를 바라보자

■ 히브리서 12장 1~3절

■ 28(통28), 263(통197)

■ 2017년 8월 13일

히브리서 11장 말씀들에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히 11:33~40).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과 선진들을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경주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믿음의 선진들과 증인들을 보며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달음질하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 첫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말씀입니다(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1절a).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고 우리 영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성도는 마치 믿음으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1절b)**. 무거운 것은 **첫째, 죄의 짐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무겁고 힘들게 합니다. 다윗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시32:4). 다윗이 죄를 범하고 죄를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가 무거워 날마다 놀리고 어두워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찾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를 할 때 등에 짐을 메고 달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은 **둘째, 내가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해봤자 모든 것이 근심뿐이고 헛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물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거운 것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물질과 가정과 세상에 매이게 되고 결국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짐을 주께 다 맡기면 은혜를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고(벧전5:7),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시55:22).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마11:28~30). 우리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엷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1절c)**. 엷매이기 쉬운 죄는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마음이 매여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약1:14~15).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것에 미혹되어 끌려가고 진리를 양보하고 치우치게 됩니다. 엷매이기 쉬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 두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2절). 달리기를 하

는 선수는 목표와 꺾대가 있어야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와 꺾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째,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장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감독이나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잘 달려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소 체휼하면서 모든 길을 만 들어주셨습니다.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주시면서 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리시고, 피곤해지시고, 미움도 받으시는 등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고난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딸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이 구원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이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달려 가셨고,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힘써 달음질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을 벗지 않으면 피곤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을 쓸 수가 없고, 말씀대로 걸어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영육 간에 피곤함이 오고 낙심이 들어와서 주저 않게 되고, 바로 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깨어서 일어나면 믿음으로 달음질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역사해주시 줄로 믿습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짐과 내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를 벗어나버리시기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욕심을 벗어나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나면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 중요 공과 내용

1.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 벗어나야 하는 것을 2가지로 설명해 보세요(1절).
2. 앞서 달려가신 예수님에 대해 3가지로 설명해 보세요(2절).
3.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3절).